# 주간 테러동향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6. 10(금)

##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### 미 주

○ **美 대법원, 소셜미디어 콘텐츠 삭제 금지한 텍사스法 제동**

- 6.1 美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차단·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州法 시행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 찬성 5명, 반대 4명으로 同法의 시행을 제지

  * 1심은 '21.12월 위헌 결정, 항소법원은 지난 11일 합헌 결정

○ **美, 흑인 10명 살해범에 대해 '테러' 등 혐의 적용 기소**

- 6.2 뉴욕州 법원 대배심은 5.14 버펄로市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흑인 10명을 살해한 「페이튼 젠드런」(18세)에 대해 '국내 테러 및 증오 범죄 살인' 등 25가지 협의를 적용해 기소 결정

  * 대배심은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사법 절차상 기구이며, 증오에 의한 국내 테러로 유죄 평결시 사면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전망

○ **테이저건 제조사, 윤리 논란에 '테이저 드론' 개발 보류**

- 6.6 美 방산업체인 '엑슨'(테이저건 제조사)은 드론에 테이저건을 장착하여 위기 상황에서 총격범 등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'테이저 드론' 개발을 발표하였다가 제조사內 윤리위원회 반발*로 철회

  * 기술력만 앞세운 치안도구 개발, 총기난사 참극을 상술에 이용 등 비판

### 아·태평양

○ **인도, 힌두 성지 순례기간 중 '테러 가능성' 경고**

- 6.6 인도 정부는 힌두교 최대 성지순례인 '아마르나트 야트라'* (Amarnath Yatra, 6.30~8.11) 기간 중 중대한 테러 공격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, 행사 규모 축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

  * 매년 수십만명이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'아마르나트' 동굴(해발 3,888m)을 찾는 행사로, '17.7.11 테러 공격으로 순례객 8명 사망 및 19명 부상

○ **인도 법원, '06년 바라나市 폭탄 테러범 사형 선고**

- 6.7 인도 법원은 '06.3 인도의 2대 축제로 불리는 '홀리'를 일주일 앞두고 힌두교의 대표 성지인 바라나市 고대 사원과 인근 열차역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한 테러범 「와시울라 칸」*에게 사형을 선고

  * '06.3.7 바라나市 열차역·사원의 연쇄 폭탄테러로 23명이 사망하고 70여명 부상

## 유 럽

○ **터키, 시리아 內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 군사활동 경고**

- 6.2 터키 「에르도안」 대통령은 시리아 內 쿠르드 자치정부 무장세력인 쿠르드민병대(YPG)가 휴전 합의*를 이행하지 않는다며, 시리아 동북부 쿠르드 자치정부지역 군사활동 재개를 경고

  * 터키는 '19.10월 시리아 주둔 美軍 철수 발표 후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(YPG)를 공격하였으며, YPG가 터키 국경에서 30Km 밖으로 물러나는 조건으로 휴전

## 중 동

○ **탈레반, 아프간 판지시르에서 저항군 3명 참수**

- 6.6 현지언론은 탈레반이 아프간 북동부의 판지시르州에서 아프간 민족저항전선(NRF) 소속 대원 3명을 참수하는 등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, 탈레반측은 관련 사실 부인

  * NRF는 지난해 탈레반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이후 산·계곡에서 게릴라전 수행

## 아프리카

○ **나이지리아, 가톨릭 '종교시설' 테러로 최소 50명 사망**

- 6.6 나이지리아 정부는 남서부 온도州의 '성 프란체스코 성당'에서 미사를 위해 운집한 가톨릭교도 대상 총격·폭발 등 테러공격으로 최소 50명 사망·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

  * 나이지리아 온도州는 가톨릭교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종교갈등이 극히 적은 지역으로, 나이지리아에서 치안이 가장 잘 관리되는 지역

## 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 이스라엘, 도심지 차량 자살폭탄 테러

○ '02.6.5 오전 7시경 이스라엘 북부 메기도市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1대가 버스에 접근 후 폭발, 16명이 사망하고 40여명 부상

* 메기도市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자치도시 예닌과 인접한 곳이며 출근 시간대 滿員 버스에 가해진 자폭테러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

○ 팔레스타인 과격 무장단체 '이슬람 지하드'가 배후를 자처하였으며,

- 이에 이스라엘軍은 전차와 헬기를 동원해 '이슬람 지하드'의 거점으로 알려진 예닌市 일대를 공격하는 한편,

-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,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 일대를 포위하고 포격을 가해 청사 건물 일부를 파괴하는 등 보복 조치

○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사건 관련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개각*을 단행하는 등 평화협상을 위해 노력

* △對이스라엘 협상가 출신 장군 내무장관 임명 △장관직 축소(31석 → 21석) △對이스라엘 테러 연루 의심 보안기관 축소 등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스라엘은 테러 공격 차단을 이유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경계선에 분리장벽 설치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 강화

## 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 <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>

■ **(목표)** 팔레스타인 內 이스라엘 축출 및 이슬람 국가 건설

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EU('05.12) 등

■ **(조직규모)** 1,000명('20.6, 美 국무부)

■ **(연계세력)** 이란(재정 지원), 헤즈볼라, 하마스

■ **(핵심인물)** 지야드 알 나칼라(지도자)

■ **(활동지역)** 팔레스타인 서안·가자지구, 이스라엘, 시리아 등

■ **(활동수법)** 이스라엘軍 및 주민 대상 로켓 공격, 인질납치

■ **(주요동향)**
- '19.5 하마스와 공조, 가자지구에 로켓 700여발 발사(사망 4, 부상 80)
- '20.2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로켓 20여발 발사